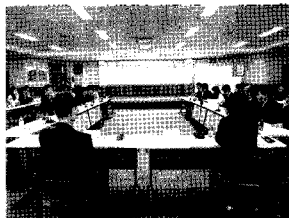


쇠고기 이력제



〈워크숍 전경〉

‘쇠고기 이력제’ 정보 활용 확대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지난 '09년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업무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육단계에서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수집된 정보 활용 확대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력제 정착 위한 식육판매업영업자 전국 순회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사)축산기업중앙회와 연계하여 쇠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경과사항 홍보 및 유통단계의 이력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식육판매업영업자 대상 2분기 순회교육을 서울(4.27)을 시작으로 대전(4.28), 광주(5.6), 대구(5.12), 부산(5.25), 제주(5.18)에서 실시 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교육〉

경기지역

용인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경기 용인시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시는 4월 말까지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1억 4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은 농가 경영 및 회계 시스템, 시설, 환경, 토양, 작물, 유통 뿐만 아니라 한우, 젖소, 돼지, 원예 등 동식물의 번식·방역과 위생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적힌 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농가 중에서 원예나 특작은 5천㎡ 이상, 가공은 매출액 2억원 이상(여성농업인 1억원 이상), 한우나 젖소는 50두, 돼지는 1천두, 양계 2만수 이상, 꿀벌은 200군 이상이 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준에 합당한 곳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130개 농가를 대

상으로 8억1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면서 “앞으로 지원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농가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평창군, 축산농가 지원 나서

강원 평창군이 지역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취급 및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책을 펼친다. 지난 4월 23일 군에 따르면 군포사일리지 이용 농가의 조사료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포사일리지를 트랙터용,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트랙터 부차용 베일집게(그레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 곳당 200만 원씩 10곳의 사업장에 베일집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날 초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방

침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사일리지 제조 시 부패를 방지하고 사료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를 지원한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은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조사료 생산농가와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조사료를 3ha 이상 재배하고 단체의 경우 10ha 이상 재배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5월 초 사업 대상자를 확정·지원할 계획이다.

경북지역

경북농민사관학교, 축산 5개 과정 임시휴강

경북도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농민사관학교 36개 과정 가운데 축산관련 과정 5개 과목을 임시휴강한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휴강과정은 경북대(친환경양돈반·번식우반)와 안동대(명품한우반), 영남대(품목마이스터 한우반), 대구대(친환경축산전문과정) 등이다. 기간은 구제역 종로시까지다. 5개 이외 과정 교육생 중 구제역 발생가능 축산농가가 다수 포함됐을 때도 임시휴강 및 조기방학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다수 있어 교육장입구 소독시설설치 및 구제역과 관련 불가피하게 결석 시 출석인정 등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런 구제역 발생으로 학사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여름방학과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해 부족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남지역

진주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경영개선 지원

경남 진주시가 FTA 등 수입 개방과 사료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사료 재배·이용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적극 지원한다고 지난 4월 27일 밝혔다. 시는 조사료 재배·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및 제조운반비, 생볏집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원형곤포 절단기·사료작물 파종기사업 등 9개 사업에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29가구에 1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별 축산농가에 80대의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한다. 또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트랙터 외 7종의 조사료 생산 장비 19대를 지원하고 5억7천600만원의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를 투입한다. 이와 함께 청보리 등 700ha의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로 2억3천300만원, 볏짚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용으로 2천500롤의 비닐대 2억2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볏짚 및 사료작물의 곤포사일리지 제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5천600만원의 사업비로 13대의 원형곤포절단기를 지원하는 등 FTA 협정과 사료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덴마크식 돼지 도축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덴마크식 도축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21일 밝혔다. 도는 경쟁력 제고와 매년 돼지도축두수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선진국형 도축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도축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설치되는 도축시스템은 덴마크 도축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돼지 자동불이 컨베이어 시스템과 CO₂기절시설, 자동 도축번호 표기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도는 이번 도축시스템 도입으로 돼지고기 도외반출물량이 생산량 대비 75%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 지역 돼지 도축 수는 지난 2007년 61만 3458두, 2008년 66만3511두, 2009년 68만9156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작업장별 돼지 도축두수도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